

# 여수 낭도 생태관광 명소 탈바꿈

### '짜목짜목 낭만 낭도' 조성 완료 둘레길 개선·생태관광상품 개발 3년간 6억 8천만원 들여 새단장



여수 낭도가 '짜목짜목 낭만 낭도' 사업을 통해 생태섬으로 탈바꿈했다. 낭도 전경. <여주시 제공>

"공룡의 흔적 찾아 '생태섬' 낭도로 오세요." 여수시가 3년간 추진해 온 '짜목짜목 낭만 낭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태 녹색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시는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추세에 맞춰 '공룡섬 낭도'에 사업비 6억8800만원을 투입해 '짜목짜목 낭만 낭도' 만들기를 추진했다.

새단장을 마친 낭도에 대한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낭도 둘레길에는 보행 매트와 디자인 울타리, '낭도와 약속' 표지판을 설치하고, 데크계단과 안내판, 포토존 등을 정비해 이용자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낭도 야영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잔디블록 포장과 경계석 설치, 사이트·진입로 등을 정비했다.

경상사업은 DMO(지역관광추진조직)인 (사)여수시관광협회가 주관해 '전문해설사와 함께 하는 공룡 발자국 현장 체험', '해변 명상 체험', '낭만 낭도 마실' 등 때 묻지 않은 자연에서 쉬는

경험하는 '낭만 낭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다.

또한, 매년 개최 중인 '짜목짜목 낭만 낭도 페스티벌'을 통해 섬의 전통문화인 '비비각시탈 놀이'를 재연해 잊혀 가는 고유 풍습의 의미를 나누며 눈길을 끌었다.

마을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과 생태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해 주민 해설사로 배출하며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여수시 관계자는 "낭도는 주상절리와 공룡 발자국 등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특히 둘레길은 천혜의 경관으로 전국의 산악회에서 찾는 명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27년 상반기 '사도-낭도 인도교 설치사업'까지 완료해 낭도가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성군 조성면

###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7가구에 2100장 배달

보성군 조성면이 지난 19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다. <사진>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연탄나눔 봉사는 연말을 맞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온정을 나누고자 시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은 (사)따뜻한한반도사랑연탄나눔운동 보성군 지부 주관으로 조성면 이장단·의용소방대·복지기동대·희망드림협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저소득 가구 중 연탄에 의존하는 7가구에 가구당 300장씩 총 21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광양시,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신규 30명 포함 139명 대상

광양시가 최근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13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성명·주소·체납액·체납요지 등을 행정안전부·전라

남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139명에는 신규 30명이 포함됐다.

광양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일부 납부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은 거친 끝에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연주 광양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 세금 자진 납부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광양시는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공무원들이 그린 2030년 순천은?

### 미래비전 수립 정책 경연대회 11개 분야 비전 실행계획 소개

"2030년 순천에선 어떠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을까"

순천시가 2030년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일류순천 미래비전 수립 정책 경연대회'를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대비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미래산업 ▲혁신농업 ▲의료 ▲시민복지 ▲도시공간 ▲기후환경 ▲안전교통 ▲문화도시 ▲관광 ▲교육 ▲메가시티 등 11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다.

시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분야별 공무원 67명을 선발해 TF를 운영했으며, 정책 내실화를 위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비전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분야별 주요 정책으로 혁신농업 분야의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스마트팜·향·농식품·반려용품·유통 등 5대 산업 연계), 교육 분야의

생태칼리지 설립(생태전환교육 운영), 의료 분야의 필수 의료 지원체계 구축(의료지원재단 설립·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영투백(0 to 100) 돌봄, 체류형 관광을 위한 권역별 마을호텔 조성 등 지역발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특히, 이 시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이미지·음악·목소리 등을 발표에 활용하는 미래 행정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혁신농업' 분야 등 6개 팀이 우수 정책팀으로 선정됐다.

유현호 여수시 부시장은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분야별로 종합적인 정책 실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이라며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2030년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접목하며 연동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농어촌공사 구례지사, 수질환경보전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지난 19일 농업용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수질환경보전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환경단체·농업인단체·지역주민대표 등 1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수질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분석, 지자체의 오염원 및 불법 오염행위 감시, 지역 농민들의 수질개선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주제별 역할 확립과 향후 수질개선에 관한 의견공유가 이뤄졌다.

임성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은 "계속되



는 기후변화로 수질오염이 증가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자체, 환경단체, 농업인단체, 지역주민과 협업하여 수질환경보전과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곡성 쇼핑몰 '나눔기부' 품목 20% 할인

### 235개 품목 무료 배송 서비스도

곡성군 대표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에서 오는 26일까지 '나눔기부 참여업체 상품 대상 20% 할인 기획전'이 열린다.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입점업체의 자발적인 나눔기부라는 점에서 다른 쇼핑몰과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군은 기획전을 시행하기 위해 쇼핑몰 입점 신청 단계부터 분기별 간담회 때마다 업체와 지속적으로 나눔기부 실천에 대해 공유해왔다.

현재 42개 업체가 나눔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곡성몰에서 '나눔기부'마크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 대상은 235개 품목으로 절임배추·유림상추·사과·유정란·요거트·토란부각·민물장어 등 곡성몰의 인기 상품이다. 또 20% 할인은 물론 전 상품 무료배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곡성몰 업체들은 곡성 어린이들을 위해 판매 수익의 일부를 매월 기부하고 있으며, 이 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교통비·의료비·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올해는 26명의 아이들에게 지원됐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